

# GGM 노조, 지역사회 합의 파기하고 설립 5년만에 파업

### 10일 파업 선포후 노조 간부 20여명 4시간씩, 이번주부터 순환 파업 노사민정 합의·직원들 입사하며 작성한 상생발전협정 서약서 부인 민주노총 산하 모빌리티진흥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 직면" 비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결국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시민사회·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의를 이뤄 만들어낸 GGM은 모든 구성원이 입사 시 '무노조·무파업'을 필자로 하는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GGM 노조가 회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노조 측은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 데도, 마치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의 설립과 파업에 따른 노사 갈등을

우려해 노·사·민·정이 35만대 생산까지의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이 자칫 사회적 합의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GGM의 출범 취지를 손상시켜 유사한 일자리 창출, 기존 GGM 투자자 투자금 회수, 현대자동차 위탁 중단 등의 사태로 이어질지에 지역민과 우리나라 경제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GGM측은 노조원을 제외한 인력으로 일단 공장 가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민주노총과 GGM 등에 따르면 GGM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파업을 선포하고 이날 오후 1시

부터 4시간 가량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노동조합의 9% 수준인 20명으로, GGM 지회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내 간부급 직원이다. 이번 주부터 파업 참여 인원 증가 및 부분파업이 전체 파업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파업 철회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말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25명 중 200명이 파업에 찬성(88.9%)해 가결을 선언한 뒤 지난 10일 파업을 선포했다. GGM 노동조합이 결국 쟁의행위에 들어가면서 노·사·민·정 각계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GGM 출범 당시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윤준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안타깝다.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최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중재위를 통

해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GGM 설립에 참여한 주주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특히 주주들은 배당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도 GGM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투자기업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GGM의 주주로 참여한 A기업 대표이사는 "GGM 투자기업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쟁의로 투자 서약서가 파기됐으니 언제 투자를 철회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업들 대다수가 지역 청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에 나섰던 만큼,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협정서 준수 서약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영계 관계자는 "GGM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으로 2교대 도입도 무산되면서 지역 청년 3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생산량도 줄어듦으로써 지역 경

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회수가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이 일할 곳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GGM 노동조합의 파업은 같은 민주노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GGM 노조의 파업을 비판했다. 진흥원지부는 "GGM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우리는 지역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파업은 회사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주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중재위 구성 및 GGM 상황과 관련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1분기 제조업 매출 추가 둔화 전망...반도체·자동차도 영향권

### BSI 88...전 분기보다 7P 하락 수출·투자·고용 등 기준선 하회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제조업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지난달 9~24일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매출 전망 BSI가 88로, 전 분기(95)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보다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

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분기별 매출 전망 BSI는 작년 2분기 102를 기록한 뒤 작년 3분기 98로 기준선인 100 이하로 내려왔다가 작년 4분기 다시 3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번 분기에 여기서 7포인트가 더 내려갔다.

매출(88)을 비롯해 시황(87), 수출(91), 설비투자(95), 고용(96), 자금 사정(85) 등 다른 항목의 1분기 전망 BSI도 모두 기준선 100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 전망 BSI를 업종별로 보면 전 분기에는 기준선 이상이었다던 무선통신기기(112→92), 바이오·헬스(103→98), 이차전지(100→92) 등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반도체(92→

88), 자동차(94→92), 조선(99→95), 정유(97→85), 철강(92→74)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선을 하회했다. 전년도 4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87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도 4분기 시황 현황 BSI는 84로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수출(90→91)과 경상이(85→86)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이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재심화 및 고금리 지속(41%), 고용 관세 부과 영향(24%) 등을 우려했으며 중국산 제품 대체 효과(13%)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연합뉴스



## GICON, 대만 TTA와 2025년 스타트업 육성 협약

###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5'서

지난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5)'에 참가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대만 최대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TTA와 아시아 테크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대만의 테크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류 증진 및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디지털(ICT),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교류추진 ▲디지털(ICT),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력 ▲아시아 테크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필자로 한다.

GICON은 지역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스튜디오 광주 in 아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콘텐츠 분야), 2024년 태국(ES포츠)에 이어 이번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세번째로 ICT 분야 글로벌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CES2025 광주공공기관 운영과 대만 TTA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광주시의 콘텐츠, ICT 분야 전략 산업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협광주본부 이틀간 설 명절 직거래 장터

### 22~23일 광주본부 주차장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연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광주지역 15개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개의 우수 농·축산물, 농협계통에서 취급하는 명절선물용 상품, 제수용품 등이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앞서, 광주본부는 지난 1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협의회(사진)를 열고 직거래장터 품목·운영계획,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명절 직거래장터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초임 5천만원 돌파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

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

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5만7568달러로 일본 대기업(3만6466달러)보다 57.9%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현장규제·애로 신속 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에 제출할 건의서를 접수하면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의 접수는 아래 QR코드 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express.kbiz.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 설 선물세트 싸게 사세요

12일 모델들이 홈플러스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 주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 광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추진

###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 가동

광주본부세관이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등 설 상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또 수출화물 선적의무 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에 최대

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운영이 도움이 되도록 14일부터 24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서 환급금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환급업무 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 운영,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통관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다음달 7일까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 국토부 4주간 5200명 추가 투입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 물량은 작년 11월보다 9% 많은 1850만박스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간선 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을 포함한 3100명 등 총 5200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한다. 국토부는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이 연휴 1, 2일 전부터 집회를 제한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는 매일 종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사전 주문을 지자체·공공기관에 독려하기도 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

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 115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8	22	26	32	38	2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54,965,425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4,796,993	62
3	5개 숫자일치					1,453,735	3,190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785
5	3개 숫자일치					5,000	2,559,114